

“평양어 성경, 남북통일 앞당길 촉매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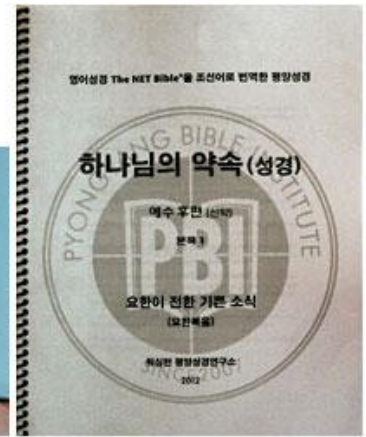
평양어 성경 펴낸 美 탈북학자 김현식 교수

“정치·군사적인 수단보다는 종교나
문화적인 접근이 남북통일을 앞당겨 줄
겁니다.”

지난달 말 영어 성경을 번역해 '평양어 성경'(워싱턴 평양성경연구소)을 펴낸 탈북학자 김현식 (80·사진) 미국 조지 메이슨대 북한학 연구교수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8~29 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평양성경연구소에서 양광호 (페어팩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통한 국민일보와의 대담 및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의 북한 체제는 근 40년간 다져진 김정일의 신격화 사상교육으로 그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뒤에도 특별한 문제없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개혁과 개방 물결을 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경 발행처별 본문구절 비교

발행처	요한복음 3장 16절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 199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성경전서, 1977)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었다.
평양성경연구소 (평양어 성경, 2012)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그분께서 자신의 외아드님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유럽에서 세계관을 세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과 세계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1970년대 중반부터 당시 중앙당 청년사업부 부장이었던 장 부위원장과 15년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다.

김 교수는 이어 “남북통일에 대한 남한과 북한, 양 체제의 노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그동안 이어져온 정치, 군사, 경제적 방법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적인 접근 방법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통일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북한 곳곳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남북통일의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